

# “동북아 지정학적 갈등, 지경학적으로 푸는 지혜를”

〈地政學〉

〈地經學=헛별정책〉



박경서 교수



진장이 교수



다카미네 젠신 의장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동북아의 국제협력질서도 기약할 수 없는 만큼 한반도 문제를 기존의 지정학적 접근에서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18일)를 맞아 광주일보사가 전남도, 목포시, 신안군과 공동으로 10일 오후 1시30분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개최한 ‘김대중 평화사상과 동북아 안정’ 국제학술회의에서 나왔다.

(사)행동하는 양심 광주협의회(회장 정진백)가 주관한 이번 학술회의는 DJ 평화사상의 계승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한·중·일 3개국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운영역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김대중 평화사상’을 주제로 기조연설한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전 대한민국 인권대사·동북아 평화연구소 명예소장)는 “(고)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발전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분단고착형 평화체제일 뿐 이라고 강조했

박경서 “대북정책, 거시적 외교정책 틀서 접근해야”

진장이 “경제적 접근이 북한 변화시킬 수 있어”

다카미네 젠신 “동북아 인적·물적·정보 교류 늘려야”

다”면서 “이는 곧 남북 통일은 물론 동북아의 안보협력도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북정책은 한국이 처한 특수영역으로만 고립시켜 파악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공동체, 다자안보협력,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여 등 거시적인 외교정책의 틀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대중 평화사상과 중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진장이(金景一) 중국 북경대 교수(한반도 연구

센터 부주임)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핵심 키워드는 대립과 대결이란 지정학적 접근고리를 끊고 협조와 협력의 지경학적 접근으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문제를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는 지경학적 접근이야말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유지에 중국을 끌어들이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을 ‘움직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남북한간의)교류와 접촉을 차단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의 ‘헛별정책’은 바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지경학적 접근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카미네 젠신(高嶺善伸) 일본 오키나와 시의회의장은 ‘김대중 평화사상과 일본의 선택’이란 주제로 동북아 평화유지에 필요한 일본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태평양전쟁의 아픔을 겪은 오키나와와는 현재적 관점에서 동북아 평화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인적, 물적, 정보, 문화교류를 촉진한다면 동북아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열띤 논쟁이 펼쳐졌다.

토론자로 나선 성진기 전남대 철학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18일)를 맞아 전남도와 목포시, 신안군, 광주일보가 공동주최한 ‘김대중 평화사상 국제학술회의’가 10일 오후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일보 주최 ‘김대중 평화사상과 동북아 안정’ 紙上 증계

지,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지를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재관 전남대 정의과 교수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체제유지를 우선하고 북핵과 북한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북핵과 북한문제를 분리시켜 접근하는 ‘이중정책(dual policy)’은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진장이 교수의 지적처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MB 정부 외교노선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전제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북미 공동코뮤니케’ 등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로 정착 지역 안보기구로 발전 ▲남북간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는 다자 경험 및 다자 안보협력 확대 ▲한반도 분단체제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현상유지’ 정책 타파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용의 전남대 일어일문과 교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을 방문



성진기 교수



김재관 교수

성진기 “유럽연합 같은 동북아 갈등 녹일 용광로 필요”

김재관 “북핵과 북한문제 분리 대응하는 중국 주목”

김용의 “오키나와, 동북아 평화안정 거점 활용을”

과 교수는 “6자회담이 중단되고, 한국을 뺀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전 환점을 맞고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지혜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화의 여러 부정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화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동북아 공동체’를 주창한 박경서 석좌교수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고 “유럽연합처럼 동북아 국가간에도 갈등과 대결을 녹일 용광로가 가능할

한 자리에서 오키나와가 일본 및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는 오키나와의 역사적 현실과 지정학적 위치가 동북아 안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제학술회의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박우람 신안군수, 정해숙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위원회 각계인사와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목포=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slee@



김용의 교수



대한민국입니다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성일로점(법률공원 상설로 입구) 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옆)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옆)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 시민회관 옆)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옆) 031246-5110 의정부점(보천로터리)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방2001아울렛 옆)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옆)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6-1090 오산점(국인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매곡역) 032039-4400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051818-8800 서면점 818-0016 남포동점(부평구청 옆) 051256-7200 울산 울산점(광명로터리) 0520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 0551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053425-4440 상덕점(상덕네거리) 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가길 옆) 053425-7575 경북 포항점(유저) 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중고4거리) 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 도정 옆)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지하상가길) 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 063252-5728 고산점(구 시청문 옆) 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4거리) 063838-9900 남원점(시정4거리) 063632-2626 대전 대덕점(도정 옆)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터리) 04222-3389 대전점(대전역 옆) 042255-4900 충청 천안점(한양역 옆) 041653-2898 광주점(광주문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 카페로 구 속 리산고속 맞은편) 043222-1177-6 충주점(삼현로터리) 043852-1414 경북 경북점(덕천오거리) 033647-5588 충청권(영호광명 옆)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동로터리) 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점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인증기관 인증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기 제조업체

광주 권도점(영호광명) 062225-5110 문의전화 062225-5110 서울 권도점(영호광명) 062651-4477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세기보청기) 061752-8845 문의전화 061752-8845